■ 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577-608.
http://doi.org/10.17948/kcs.2019..85.577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

하영우(河永祐)**

목 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 변화
4. 전남 방언의 단모음 음가 변화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 양상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남 서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단모음 실현 양상과 음가를 살펴보았으며, 유사 방식으로 연구된 전남 서남부, 동부 지역의 결과를 함께 종합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전남 지역의 단모음 체계는 하위 방언권보다는 세대를 중심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청소년층은 /ㅟ/, /ㅚ/가 단모음 체계에서 완전히 이탈한 7모음 체계인 데 비해 노년층은 두 모음이 단모음 체계에 한정적으로 남아 있는 잠정적 7모음 체계였다. 다만 전남·경남 접경지대인 구례의 노년층은 예외적으로 /ㅖ/, /ㅐ/를 변별 산출하는 잠정적 8모음 체계를 보였다. 단모음의 음가 역시 세대를 중심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

* 전남 방언 연구를 위해 생업 중에도 기꺼이 실험에 참가해 주신 영광 지역 주민 여러분과 실험 진행을 위해 누구보다 큰 도움을 주신 김현종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전주대 국어교육과 조교수.

였다. 노년층의 /ㅓ/는 전남 방언 연구의 전통적 가정대로 /ㅡ/에 가깝게 실현되었으나 청소년층은 /ㅓ/가 후설저모음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노년층과 달리 청소년층의 단모음 음가는 '/ㅓ/의 후설저모음화'를 포함하여 '/ㅗ/의 고모음화, /ㅜ/와 /ㅡ/의 전설화'로도 나타났다. 단모음 음가 변화는 일부 노년층의 /ㅓ/에도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노년층도 단모음 음가 변화가 가능할 수 있으며 전체 단모음 음가 변화와 관련하여 /ㅓ/가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제어: 전남 방언, 단모음 체계, 단모음 음가 변화, 세대, 표준화.

1. 서론

이 연구는 전남 지역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 양상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남의 서북부 지역인 영광 지역을 대상으로 단모음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유사 방식으로 연구된 전남 서남부(진도)와 전남 동부(순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하였다.

전남 지역의 단모음 체계는 /ㅣ, E, ㅟ, ㅚ, ㅡ, ㅓ, ㅏ, ㅜ, ㅗ/의 9모음으로 대표되지만 하위 방언권에 따라 편차가 있다. 전남 방언은 크게 동부와 서부로 구분되는데, 9모음 체계인 서부와 달리 동부는 10모음 체계로 설정된다[1]. 전남 서부와 동부의 단모음 체계 차이는 /ㅐ/와 /ㅒ/의 합류 여부에 기인한다. 해남, 진도, 완도, 영암, 강진, 나주, 담양 등지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 지역은 두 모음이 이른 시기 /E/로 합류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2]. 이와 달리 구례, 광양, 여수, 순천 등지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

1) 이돈주, 『전남방언』, 형설출판사, 1978; 이기갑, 「동부전남 방언의 성격」, 『언어학』 제7호, 한국언어학회, 1984.

2) 이돈주, 앞의 책; 기세관,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박양구, 「전남 방언의 모음체계」, 『논문집』 제7집, 한성대학교, 1983; 이기갑, 「전남방언의 하위구획」, 『한국언어문학』 제21집, 한국언어문학회, 1982; 앞의 글, 1984; 남정식, 「全南 內陸 方言의 音韻考: 東部地域과 海岸地域을 比較하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1990; 정채삼, 「全南 康津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95; 김경표, 「해남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8; 이상신, 「전남 영암지역어의 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 이진숙, 「진도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김경표,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지역은 /ㅖ/와 /ㅐ/가 변별적이며, 다른 하위 방언권에 비해 /ㅟ/, /ㅚ/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뚜렷하게 가진다[3].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는 서부의 9모음 체계와 동부의 10모음 체계로 양분되지만 이 체계가 현재까지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전남 서부 지역의 /ㅟ/, /ㅚ/는 단모음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ㅟ/, /ㅚ/가 단모음 체계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전남 서북부와 서남부에서 모두 관찰되고 있으며, 세대를 가로질러 노년층에게도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4].

단모음 체계의 변화는 전남 서부는 물론 전남 동부에서도 관찰된다. 전남 동부 지역은 90년대 초기까지 10모음 체계가 공고히 유지된다고 보았으나 이후 /ㅖ/와 /ㅐ/, /ㅟ/와 /ㅚ/를 중심으로 단모음 체계의 변화가 보고되었다. 기세관[5]은 여수 지역의 단모음 체계가 현대 이전에는 10모음이었으나 현재 9모음 체계를 거쳐 7모음 체계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ㅖ/, /ㅐ/의 대립 불안정이나 /ㅟ/, /ㅚ/가 단모음 체계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여수에 인접한 고흥 지역[6]과 순천 지역[7]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전남 서부 지역과 달리 전남 동부 지역은 단모음 체계의 변화가 각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기세관[8]은 여수 지역의 단모음 체

3) 이승재,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0; 서주열, 「전남・경남방언의 등어지대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1; 이기갑, 앞의 글, 1982; 앞의 글, 1984; 김희수・서상준, 「광양지역의 방언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제13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1983; 배주채, 『고흥방언 음운론』, 國語學會, 1998; 위평량, 「전남・경남 접경 지역의 언어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0; 서성원, 「순천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봉국, 「경남・전남 접경 지역어의 음운」, 『동남어문논집』 제31집, 동남어문학회, 2011.

4) 손희하・위평량, 「구림 지역어의 변화: 노년층과 장년층의 음운 비교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28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1; 이상신, 앞의 글; 이경진, 「영광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08; 이진숙, 앞의 글, 2010; 「고흥 지역어와 진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김경표, 앞의 글, 2013; 이진숙, 「담양 지역어의 특징적인 음운현상」, 『국어학』 제69집, 국어학회 2014; 하영우・신우봉,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 『민족문화연구』 제79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5) 기세관, 「여수방언의 음운론적 특성」, 『先淸語文』 제24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6.

6) 배주채, 앞의 책; 이진숙, 앞의 글, 2013.

7) 서성원, 앞의 글; 하영우, 「순천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언어와 정보 사회』 제35호,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2018.

계 변화를 언급하면서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광양이나 구례 지역은 모음 체계가 다르다고 하였다. 실제로 구례나 광양 지역은 여수나 고흥, 순천 지역과 달리 최근까지 10모음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구례나 광양 등지는 동부 지역 중에서도 경남과 직접 경계를 이룬다는 방언적・지리적 특징이 있다. 그러나 구례, 광양 지역이 이전 시기와 동등하게 10모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 역시 '베:배'처럼 일부 어휘에서 'ㅖ, ㅐ 〉 E' 합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10], /ㅟ/와 /ㅚ/가 개별 어휘에 따라 단모음으로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11]. 이로 미루어 보아 구례, 광양 지역 역시 변화의 속도만 다를 뿐 변화의 방향은 여타의 동부 지역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12]

전남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모음 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단모음 수뿐만 아니라 음가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전남 방언의 /ㅓ/는 중부 방언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전설 고모음 위치에서 조음되는데, 이 특징은 단음일 때보다 장음일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3]. 그러나 전남 지역의 /ㅓ/ 음가 특징은 단모음 체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청소년층에게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진도 지역과 순천 지역의 청소년층은 노년층과는 다른 7모음 체계일 뿐만 아니라 /ㅓ/가 상대적으로 후설 저모음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단모음 체계 변화와 음가의 변화는 /ㅓ/뿐만 아니라 후설 모음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14].

---

8) 기세관, 앞의 글, 1996.
9) 김봉국, 앞의 글.
10) 같은 글.
11) 위평량, 앞의 글.
12) /ㅖ/와 /ㅐ/의 변별은 동부의 구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서북부의 곡성 지역에서도 나타나지만 단모음으로서의 지위가 명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하신영은 곡성 지역의 /ㅖ/, /ㅐ/는 어두 위치에서만 변별적이라고 보았으며, 이기갑은 이 지역의 '베:배'가 더 이상 변별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음운론적 환경이나 개별 어휘에 따라서 /ㅖ/와 /ㅐ/가 변별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신영, 「전남 곡성지역어와 경남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이기갑, 『2010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0.
13) 이승재, 앞의 글; 이진숙, 앞의 글, 2013; 정인호, 「현대국어 모음 '어'의 음가 고찰」, 『방언학』 제22호, 한국방언학회 2015;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하영우, 앞의 글.
14) 이향원・신우봉・신지영, 「한국어 후설 고・중모음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9권 2호, 한국음성학회, 2017;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하영우, 앞의 글.

이처럼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는 하위 방언권에 따른 독자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7모음 체계로 변화・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모음 체계로의 변화는 동부와 서부의 기본 단모음 체계의 차이로 인해 서부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부는 경남 비접경 지역이 경남 접경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변화 양상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단모음 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음가적 특징 역시 이전 시기의 전남 방언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전남 방언의 하위 방언권별로 나타나는 단모음 체계와 음가의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이 지역의 단모음 체계와 특성을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 양상을 실험음성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남 서북부의 영광 지역을 대상으로 단모음 실현 양상과 음가를 분석하였다. 전남 서남부(진도)와 전남 동부(순천) 지역은 유사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하영우・신우봉[15]과 하영우[16]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에 대한 논의는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이 지역의 음운 체계를 보다 명징하게 밝히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의 하위 방언 구획 등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넓게는, 단모음 체계의 변화와 징후를 질적 측면에서 포착했던 전통적인 방언 연구에 기반하여 방언 음성 자료의 직접적/계량적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론적 의의도 있다고 본다[17].

2. 연구 방법

전남 지역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위 방언권에 속한 지역(동부, 서남부, 서북부)을 최소한 한 곳 이상씩 선정

15)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16) 하영우, 앞의 글.
17) 서승완, 「방언학의 관점에서 본 실험음성학 연구사: 모음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방언학』 제27호, 한국방언학회, 2018 참조.

하여 그 양상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18] 전남 서남부의 진도 지역[19]과 전남 동부의 순천 지역[20]은 실험음성학적 관점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전 연구와 유사 방식으로 전남 서북부 지역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음가 변화를 살피고, 이를 전남 서남부, 전남 동부와 비교 분석하여 전남 방언의 전반적인 단모음 실현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남 서북부 지역 중 영광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영광 지역은 동일 하위 방언권인 함평, 장성 지역과 맞닿아 있으며, 전북 지역 중 고창과도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으로 구성된 3개 읍과 8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2월 기준 총인구는 약 5.4만 명이며,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약 1.5만 명이다.[21] 영광 지역은 지리적으로 도로 교통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은 인접 거점도시인 광주를 생활 권역으로 두고 있다.

영광 지역 피험자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화자 21명이었다. 전남 지역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노년층과 청소년층,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피험자를 설정하였다[22]. 노년층은 영광읍,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에 거주하는 남성 5명, 여성 6명이었다. 노년층 남성의 평균 연령은 69.8세(63세-78세)로 노년층 여성의 평균 연령인 65.6세(62세-67세)에 비해 높았다. 청소년층은 영광읍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학생 10명이었다(남:여=5명:5명).[23] 실험에 참가한

18) 전남 지역의 하위 방언권은 크게 서부와 동부로 분류되는데 동부를 한 곳으로 설정할 것인지 다시 동남부와 동북부로 분류할 것인지는 견해에 차이가 있다. 또한 경남과 지리적으로 직접적 경계를 이루는 구례나 광양 지역 등은 따로 접경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하위 방언 구획을 최대치로 설정하여 동북부와 동남부, 그리고 전남・경남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연구 방법론적 특성상 동남부의 순천 지역과 전남・경남 접경 지역인 구례 지역(노년층 대상 /ㅖ/, /ㅐ/ 단모음 한정)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전남 지역에 대한 단모음 체계와 음가 실현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향후 연구를 통해 확충・보완해야 할 것이다.

19)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20) 하영우, 앞의 글.

21) 「2019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현황」, 영광군, 2019.3.5, http://www.yeonggwang.go.kr/(2019.03.31 검색).

22)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하영우, 앞의 글 참조.

피험자는 실험 내용을 잘 이해했으며, 실험 당시 조음과 지각에 문제가 없었다.

실험 자료는 하영우의 연구[24]를 참조하여 1-3음절로 구성된 유의미 단어로 꾸렸으며, 10모음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각 모음별 실험 단어를 4개씩 설정했다. 다만 /ㅖ/, /ㅒ/와 /ㅞ/, /ㅚ/는 보다 자세한 단모음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어두/비어두 위치 조건, 선행 자음 여부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각 모음당 실험 단어를 7개로 설정했다. 실험 단어 중 1음절로 구성된 '개:게', '때:떼'의 경우보다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떼를 지어 다닌다'처럼 문장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매꿈질문장(filler)은 82개를 제시했다. 〈표 1〉은 단모음 유형에 따른 실험 단어를 제시한 것이다.

〈표 1〉 실험 단어 목록

유형			단모음	실험 단어
전설	평순	고모음	ㅣ	이름, 이마, 이불, 이빨
		중모음	ㅖ	에누리, 에미, 메주, 떼, 게, 누에, 걸레
		저모음	ㅐ	애호박, 애기, 매미, 때, 개, 우애, 달래
	원순	고모음	ㅟ	위암, 위험, 귀신, 뒤뜰, 가위, 더위, 앞뒤
		중모음	ㅚ	외박, 외삼촌, 괴물, 죄인, 시외, 해외, 열쇠
후설	평순	고모음	ㅡ	은반지, 은어, 은하수, 은행
		중모음	ㅓ	어깨, 어린이, 어머니, 어제
		저모음	ㅏ	아귀, 아들, 아래, 아버지
	원순	고모음	ㅜ	우비, 우산, 우유, 우체국
		중모음	ㅗ	오른손, 오리, 오빠, 오이

실험은 '단어 읽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제시된 단어를 보고 1회 낭독하였으며, 제시된 단어를 잘못 읽거나 피험자 스스로 다시 읽기를 요청한

23) 익명의 심사 위원은 세대 간 차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세대의 변화 양상을 함께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세대에 따른 단모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간 세대인 30-40대 그룹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과 하영우, 앞의 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30-40대는 60-70대와 달리 진학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인해 타 지역으로의 이주 경험이 많은 편이며, 타 지역에 4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유형도 많다. 본고에서 노년층에 대비되는 세대로 청소년층을 선정한 것도 20-40대와 달리 이주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 경험이 없는 토박이 30-40대 화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 전인 청소년층이나 퇴직 이후 세대인 60대와 달리 생업에 종사 중인 경우가 많아 본고의 실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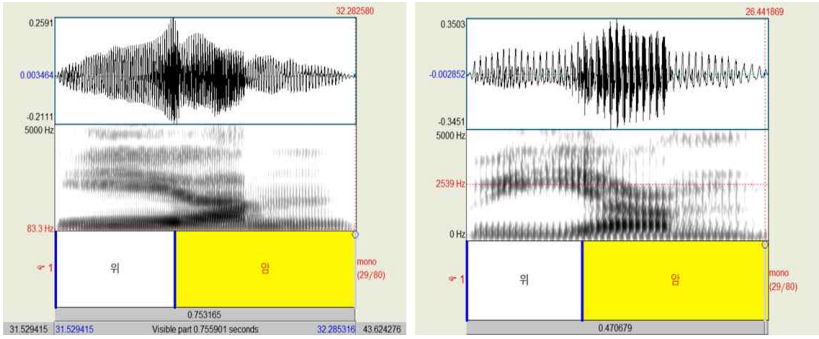
24) 하영우, 앞의 글.

경우 재낭독하였다.

실험은 소음이 적은 차량 내부와 조용한 실내에서 진행하였다. 녹음은 TASCAM DR-100 MKⅡ와 내장형 마이크를 이용하였다. 음성 자료의 표본 추출률은 44,100Hz, 양자화는 16bit로 디지털화했으며, '스테레오 → 모노' 변환은 Praat(ver. 6.0.49)를 이용하였다.

단어 읽기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1,092개였다(실험 단어 52개 X 1회 낭독 X 피험자 21명 = 1,092개). 그런데 노년층의 경우 실험 단어 '누에'와 '우애'를 '[누예]'와 '[우예]'로 발음하는 빈도가 높아 실험 후 해당 단어쌍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25]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전체 1,050개였다(실험 단어 50개 X 1회 낭독 X 피험자 21명 = 1,050개).

단모음 자료의 분석은 /ㅟ/, /ㅚ/와 /ㅣ, ㅔ, ㅐ, ㅡ, ㅓ, ㅏ, ㅜ, ㅗ/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ㅟ, ㅚ/는 전남 서부 지역에서 단모음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먼저 단모음 실현 여부를 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ㅟ, ㅚ/의 단모음 여부 판정은 선행 연구[26]와 동일하게 1차적으로 피험자의 입술 모양을 관찰하였으며, 2차적으로 〈그림 1〉처럼 이중모음에서 나타나는 포먼트 전이 구간 생성 여부와 청각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1〉 단모음 /ㅟ/(좌)와 이중모음 /ㅟ/

25) 전남 서부 지역에는 '누에'의 방언형 '뉘에', '뉘'가 분포해 있다. 위평량, 앞의 글 참조. 노년층은 이의 영향으로 텍스트가 '누에'로 제시되어 있더라도 '뉘에'형이 발음에 작용하여 '뉘에 〉 뉘예, 누예'로 실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26)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하영우, 앞의 글.

〈그림 1〉은 노년층 남성 화자(좌)와 청소년층 남성 화자(우)가 발화한 '위암'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노년층 화자가 발화한 〈그림 1〉(좌)의 '위'는 단모음으로 조음되어 포먼트의 전이구간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청소년층이 발화한 〈그림 1〉(우)의 '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어 포먼트 전이구간이 나타난다. 이처럼 /ㅟ/, /ㅚ/의 단모음 조음 여부는 피험자의 조음 관찰과 포먼트의 전이구간 생성 여부, 그리고 청각적 판단을 통해 판정했다.

/ㅟ, ㅚ/의 조음 양상은 단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활음 탈락형으로 분류하였다. 전남 지역어 화자들은 /ㅟ, ㅚ/를 단모음이나 이중모음 외에 '귀신 〉 기신'처럼 조음하기도 한다. '귀신 〉 기신'은 단모음 /ㅟ/가 단모음 /ㅣ/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wi 〉 i'처럼 이중모음에서 활음이 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귀신 〉 기신'과 같은 유형은 '활음 탈락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시외 〉 시에 〉 시예'처럼 조음한 일부 유형은 '그 외'로 처리하였다.

한편 /ㅣ, ㅖ, ㅐ, ㅡ, ㅓ, ㅏ, ㅜ, ㅗ/의 분석은 포먼트 측정법(F1, F2)을 사용하였다. 단모음의 포먼트 값은 Praat를 이용하여 각 모음별로 안정구간을 레이블링한 후 스크립트를 통해 중앙 지점을 자동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동 측정된 데이터 중 포먼트 값이 명백히 잘못된 유형은 연구자가 수동으로 값을 재측정하였다. 단모음의 포먼트 값을 모두 산출한 후에는 R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하였다[27]. 전체 756개 토큰 중 이상치는 30개였으며(이상치 = /ㅣ/: 2개, /ㅖ/: 4개, /ㅐ/: 2개, /ㅡ/: 4개, /ㅓ/: 1개, /ㅏ/: 11개, /ㅜ/: 5개, /ㅗ/: 1개), 최종적으로 추출한 대상 자료는 726개였다.

3.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 변화

전남 방언의 단모음은 전통적으로 9-10모음 체계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단모음 체계의 변화로 인해 9모음에서 7모음 체계로 수렴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7모음 체계로의 변화에서 핵심이 되는 단모음은 /ㅟ/, /ㅚ/이다. 중부 방언과 유사하게 전남 방언에서도 두 모음은 '단모

27) Tukey, J., *Exploratory Data Analysis*, Reading, Mass: Addison-Wesly, 1977.

음 → 이중모음'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남 서남부와 동부의 노년층은 일부 단모음이 관찰되었으나 대부분 이중모음이나 활음 탈락형으로 조음하였으며, 청소년층은 단모음으로 실현한 사례가 없었다[28],[29] 이러한 현상은 〈표 2〉처럼 전남 서북부의 영광 지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2〉 전남 서북부 지역(영광)의 /ㅟ/, /ㅚ/ 조음 양상

모음	세대	성별	단모음	이중모음	/w/ 탈락형	그 외	합계
/ㅟ/	노년	남	6	21	7	1	35
		여	9	7	24	2	42
	청소년	남	0	35	0	0	35
		여	0	32	3	0	35
/ㅚ/	노년	남	4	15	16	0	35
		여	1	6	35	0	42
	청소년	남	0	32	3	0	35
		여	0	31	4	0	35
합계			20	179	92	3	294

〈표 2〉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영광 지역어 화자의 /ㅟ/, /ㅚ/ 실현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영광 지역의 노년층 화자 중 /ㅟ/를 단모음으로 조음한 경우는 전체 19.5%(15회)였으며, 대부분 이중모음(36.4%, 28회)이나 활음 탈락형(40.3%, 31회)으로 발음하였다. /ㅚ/ 역시 이중모음(27.3%, 21회)과 /w/ 탈락형(66.2%, 51회)이 더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단모음으로 실현한 비율은 /ㅟ/에 비해 낮은 6.5%(5회)에 머물렀다. 청소년층 중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 나타난 예는 없었으며, '열쇠 〉 열세' 같은 일부 활음 탈락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중모음으로 조음하였다.

전남 서북부 지역의 /ㅟ/, /ㅚ/ 조음 양상은 이 지역의 단모음 체계가 두 모음의 이중모음화로 인해 9모음에서 7모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ㅟ/, /ㅚ/의 '단모음 → 이중모음' 변화 양상은 전남 동부의 일부 전남・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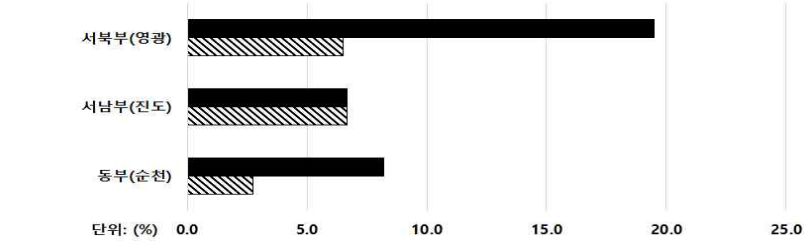
28)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하영우, 앞의 글.

29) 본고에서 제시하는 전남 서남부의 진도 지역과 전남 동부의 순천 지역에 관한 자료는 모두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과 하영우, 앞의 글을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된 자료를 재정리, 재조합한 것이다. 기술의 편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을 '전남 서남부'로, 하영우, 앞의 글은 '전남 동부'로 제시하도록 하고 개개의 자료에 대한 인용 표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남 접경지대를 제외하고 전남 서남부와 동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남 지역의 단모음 체계는 9모음보다는 잠정적인 7모음 체계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체계 변화의 주요 기제는 /ㅟ/, /ㅚ/의 이중모음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남 방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모음 체계의 변화'는 엄밀히 말해 노년층에 한정된다. 전남 지역의 노년층은 /ㅟ/, /ㅚ/를 이중모음으로 조음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지만 일부 단모음으로 실현하기도 한다. 이는 전남 노년층 화자의 단모음 체계가 '9모음 → 7모음'으로의 변화 과정에 있으며, 변화의 진척도는 매우 높지만 완료된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이와 달리 전남 지역의 청소년층은 '9모음 → 7모음'의 변화 과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지역의 청소년층에게 /ㅟ/, /ㅚ/는 애초에 단모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체계의 변화 자체가 상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30] 따라서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 변화는 현재의 노년층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정된다.

/ㅟ/, /ㅚ/가 단모음 체계 내에서 이탈하는 속도는 언어 내적 조건과 언어 외적 조건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부(순천)	서남부(진도)	서북부(영광)
■/ㅟ/ 단모음 비율(%)	8.2	6.7	19.5
▨/ㅚ/ 단모음 비율(%)	2.7	6.7	6.5

〈그림 2〉 전남 지역의 /ㅟ/, /ㅚ/ 단모음 실현 양상(노년층)

30) 전남 지역에서 /ㅟ/, /ㅚ/가 어느 세대에서부터 완전히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 경험으로 추정해 보면,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잃기 시작한 세대는 최소한 현재 노년층의 자식 세대인 30-40대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서남부에서 태어나 자란 30대 후반의 화자이지만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 존재했던 적은 없었다. 또한 동일 세대와 대화를 하면서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 조음한 것을 관찰한 사례도 전무하다.

〈그림 2〉는 전남 동부, 서남부, 서북부 지역의 /ㅟ/, /ㅚ/ 단모음 실현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두 모음의 단모음 실현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지만 /ㅟ/의 단모음 비율이 6.7-19.5%로 /ㅚ/(2.7-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ㅟ/, /ㅚ/가 단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 체계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ㅚ/가 /ㅟ/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ㅟ/, /ㅚ/의 변화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서도 달리 나타난다. 두 모음은 '귀신, 괴물'처럼 초성이 있는 유형보다는 '위암, 외삼촌'처럼 초성이 없는 환경에서 단모음 실현 비율이 높았다. 전남 동부는 단모음으로 실현된 12개의 /ㅟ/, /ㅚ/ 중 11개가 초성이 없는 환경이었다. 전남 서북부 역시 단모음으로 실현된 20개의 /ㅟ/, /ㅚ/ 중 15개가 선행 자음이 없는 환경이었다.[31] 이는 /ㅟ/, /ㅚ/의 이중모음화가 V 환경보다는 CV 환경에서 더 빠르게 일어남을 보여 준다.

/ㅟ/, /ㅚ/의 변화 속도는 모음의 유형이나 음운론적 환경 외에 언어 외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ㅟ/, /ㅚ/의 단모음 실현 비율은 전남 서북부가 전남 동부와 서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전남 서북부를 대상으로 한 본고의 실험은 전남 동부의 실험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ㅟ/, /ㅚ/의 단모음 실현 비율의 차이는 특기할 만하다. 유사한 구조로 진행된 실험임에도 /ㅟ/, /ㅚ/의 단모음 실현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하위 방언권에 따른 편차라기보다는 피험자의 연령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32] 전남 서북부(영광)의 피험자 평균 연령은 남성이 69.8세, 여성이 65.2세로 전남 동부(순천)의 피험자 평균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남성: 66.8세, 여성: 64.8세). 실제로 전남 서북부의 남성 피

31) 전남 서남부의 진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에서는 /ㅟ/, /ㅚ/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할 때 선행 자음 여부 조건을 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32) 전남 동부는 서부에 비해 /ㅟ/, /ㅚ/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그림 2〉가 하위 방언권에 따른 차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남 동부의 /ㅟ/, /ㅚ/ 단모음 비율이 전남 서북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므로 하위 지역에 따른 차이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험자 중에는 7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남성이 단모음으로 발화한 10개의 /ㅟ/, /ㅚ/ 중 9개가 70대의 발화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ㅟ/, /ㅚ/의 '단모음 → 이중모음' 변화 속도가 연령과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ㅟ/, /ㅚ/의 이중모음화는 대부분의 전남 방언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일종의 특수 지역인 전남·경남 접경지대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경남과 직접적 경계를 이루는 구례, 광양 등지는 최근까지도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33]. 그러나 구례 지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본고의 예비 실험 결과, 이 지역 역시 여타의 하위 방언권과 동일하게 /ㅟ/, /ㅚ/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이중모음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

〈표 3〉 구례 지역의 /ㅟ/, /ㅚ/ 실현 양상

모음	세대	성별	단모음	이중모음	/w/ 탈락형	그 외	제외	합계
/ㅟ/	노년	남	0	1	9	0	0	10
	노년	여	0	0	10	0	0	10
	청소년	남	0	9	1	0	0	10
/ㅚ/	노년	남	0	0	8	2	0	10
	노년	여	0	0	7	2	1	10
	청소년	남	0	9	1	0	0	10

〈표 3〉은 구례 지역의 토박이 화자 3명을 대상으로 한 /ㅟ/, /ㅚ/ 실현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구례 지역의 노년층 발화 중 /ㅟ/, /ㅚ/가 단모음으로 조음된 사례는 없었다. 구례 지역 노년층 화자는 20개의 /ㅟ/ 중 19개를 '거위 〉 거이'와 같은 /w/ 탈락형으로 조음하였으며, 이중모음으로 발음한

33) 김봉국, 앞의 글.

34) 구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비 실험은 노년층 남성 1명, 노년층 여성 1명, 청소년층 남성 1명으로 진행되었다. 노년층 남성 피험자는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이주 경험 없이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년층 남성의 나이는 67세이며, 고로쇠 채집 등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여성 피험자 역시 토지면 파도리에서 출생하여 이주 경험 없이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 여성 피험자의 연령은 67세이며, 직업은 농업이다. 청소년층 남성 피험자는 구례읍에 거주 중인 이 지역 19살 고등학생이다. 예비 실험은 목표 단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피험자가 해당 단어를 말하는 '단어 맞히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녹음은 조용한 실내에서 진행되었으며, 녹음 기기와 녹음 방식, 실험 단어, 분석 방법론은 본고의 2장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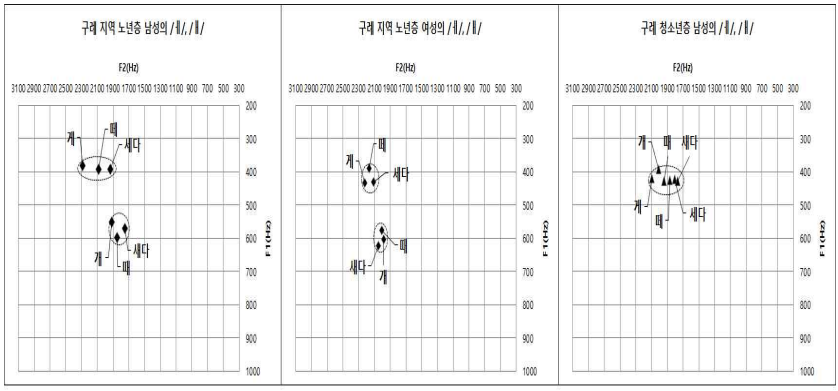
경우는 1개에 그쳤다. /ㅚ/ 역시 /ㅟ/와 유사하게 20개의 단어 중 15개를 '열쇠 〉 열세'처럼 /w/ 탈락형으로 발음했다.[35] /ㅟ/와 다른 점은 '해외[해예]'와 '야외[야예]'처럼 특수한 발음형이 나타났다는 점뿐이었다. 청소년 피험자는 노년층과 달리 /ㅟ/, /ㅚ/를 대부분 이중모음으로 조음하였으며, /w/ 탈락형이 모음당 1개씩 나타났다.

이처럼 구례 지역의 /ㅟ/, /ㅚ/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이중모음 혹은 /w/가 탈락한 형식으로 조음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ㅟ/, /ㅚ/의 단모음 체계 이탈이 전남 서남부, 서북부, 동부는 물론 전남·경남 접경지대에 이르기까지 방언권 내 전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표 3〉의 결과는 피험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 실험 결과이므로 차후 양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나, 양적 검증이 진행되더라도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ㅚ/, /ㅟ/의 '단모음 → 이중모음' 변화 양상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른 시기에 진행된 /ㅖ/, /ㅐ/의 합류는 전남 방언에서 나타나는 단모음 체계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전남 동부 혹은 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남 지역 내에서 두 모음은 변별적이지 않다. 전남 서북부의 영광 지역어 화자 역시 /ㅖ/, /ㅐ/를 변별적으로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음의 포먼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대, 성별, 모음을 독립 변수로 하고, F1과 F2를 종속 변수로 하여 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1은 세대($F_{(1,\ 238)}$=68.9, $p<.001$)와 성별($F_{(1,\ 238)}$=139.823,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세대와 성별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F_{(1,\ 238)}$=87.934, $p<.001$).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노년층 남녀, 청소년층 남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2는 성별($F_{(1,\ 238)}$=267.389, $p<.001$)과 모음($F_{(1,\ 238)}$=4.067, $p<.05$)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5) 예비 실험 과정에서 노년층 여성 피험자는 실험 단어 '시외'를 맞히지 못했다. 이에 해당 단어는 '제외'로 처리하였다.

전남 서북부에서 나타나는 /ㅖ/와 /ㅐ/의 조음적 비변별성은 서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36]. 따라서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에서 '/ㅖ, ㅐ/ 〉 /E/'는 높은 일반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남의 모든 지역에서 '/ㅖ, ㅐ/ 〉 /E/'를 상정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구례나 광양 등 경남과 접경을 이루는 전남 동부 지역은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 모음이 변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37]. 실제로 전남 구례 지역의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음성 자료 일부를 분석해 본 결과 /ㅖ/, /ㅐ/를 변별적으로 산출하였다.



포먼트	게	개	떼	때	세다	새다
F1	382	552	393	599	391	570
F2	2287	1913	2080	1846	1935	1751

포먼트	게	개	떼	때	세다	새다
F1	433	604	390	575	430	624
F2	2219	1984	2167	2004	2112	2047

포먼트	게	개	떼	때	세다	새다
F1	419	391	425	427	424	428
F2	2094	2009	1866	1939	1805	1768

〈그림 3〉 구례 지역의 /ㅖ/와 /ㅐ/ 실현 양상

〈그림 3〉은 구례 지역어 화자가 발화한 최소대립쌍 '게:개, 떼:때, 세다:새다'의 실현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토큰 수가 많지 않아 통계 검증은 진행할 수 없지만 /ㅖ/와 /ㅐ/의 조음 양상은 노년층과 청소년층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림 3〉(좌), (중)에 제시된 구례 지역의 노년층 남성과 노년층 여성은 혀의 고저와 관련된 F1을 중심으로 /ㅖ/와 /ㅐ/가 확연히 다르

36)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하영우, 앞의 글 참조.
37) 이승재, 앞의 글; 김봉국, 앞의 글.

게 분포한다. 이와 달리 〈그림 3〉(우)에 제시된 청소년층 남성은 각각의 최소대립쌍이 구분 없이 한 지역에 뭉쳐 있다.

실제로 구례 지역의 노년층과 청소년층이 /ㅖ/, /ㅐ/를 서로 다르게 조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식을 이용해 두 모음 간 거리를 측정해 보았다.[38] 측정 결과, 노년층 남성은 두 모음 간 거리가 평균 326(게:개=411, 떼:때=312, 세다:새다=257)이었으며, 노년층 여성은 평균 247(게:개=291, 떼:때=247, 세다:새다=205)이었다. 이와 달리 청소년층 남성은 두 모음의 거리가 평균 67(게:개=89, 떼:때=73, 세다:새다=37)로 노년층에 비해 약 3.6-4.8배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년층의 /ㅖ/, /ㅐ/가 각각의 모음 공간을 갖고 비교적 먼 거리에서 조음되는 데 비해 청소년층은 두 모음 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가까움을 의미한다. 추후 양적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구례 지역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두 모음을 변별적으로 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청소년층은 노년층과 달리 '/ㅖ, ㅐ/ 〉 /E/'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례 지역 노년층에게서 나타나는 /ㅖ/, /ㅐ/의 변별적 분포는 전남 지역의 단모음 체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ㅟ/, /ㅚ/는 전남 방언권 전역에서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이중모음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ㅖ/와 /ㅐ/는 /ㅟ/, /ㅚ/와 달리 현재까지도 구례 지역 노년층에게 산출 측면에서 변별적이다. /ㅟ/, /ㅚ/가 빠르게 이중모음화 과정을 보이는 데 비해 /ㅖ/, /ㅐ/는 여전히 변별적 산출을 보인다는 점은 단모음 체계 변화가 단모음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전남·경남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ㅖ/, /ㅐ/의 변별적 산출은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 변화가 접경지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구례 지역은 순천과 지역적 경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지리적 인접도와 방언적 동질성이 반드시 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

38) 유클리디언 거리 식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P(p1, p2, …)와 Q(q1, q2, …)가 있다고 가정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sqrt{(p1-q1)^2+(p2-q2)^2}$'로 설정된다. 유클리디언 거리 식을 활용한 /ㅡ/와 /ㅓ/의 거리는 각 모음이 갖는 F1, F2를 좌표로 적용하면 산출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는 대체로 기존의 9모음 체계가 7모음 체계로 수렴되고 있다. 단모음 체계 변화의 핵심은 /ㅟ/, /ㅚ/의 '단모음 → 이중모음'에 있으며, 이는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노년층은 이전 시기 단모음으로 존재했던 /ㅟ/, /ㅚ/가 이중모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변화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청소년층은 노년층과 달리 애초에 /ㅟ/, /ㅚ/가 단모음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단모음 체계의 변화 대상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ㅟ/, /ㅚ/의 변화는 전남 서남부, 서북부, 동부는 물론 동부의 특수 지역인 전남·경남 접경지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남 대부분의 지역은 7모음-잠정적 7모음 체계를 보이지만 동부의 전남·경남 접경지대는 잠정적 8모음 체계를 갖는다. 전남·경남 접경지대의 노년층은 여타의 전남 지역과 달리 /ㅖ/와 /ㅒ/를 변별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ㅖ/, /ㅒ/의 변별적 산출은 노년층에게서만 나타나며 청소년층은 두 모음이 '/E/'로 합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39]

〈표 4〉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

세대	지역	단모음 체계	단모음 목록
노년층	동부, 서부	잠정적 7모음	ㅣ, E, (ㅟ), (ㅚ) ㅡ, ㅓ, ㅏ, ㅜ, ㅗ
	접경지대	잠정적 8모음	ㅣ, ㅖ, ㅒ, (ㅟ), (ㅚ) ㅡ, ㅓ, ㅏ, ㅜ, ㅗ
청소년층	전 지역	7모음	ㅣ, E, ㅡ, ㅓ, ㅏ, ㅜ, ㅗ

39) 전남 서북부는 본고에서 다룬 영광 지역과 담양 지역에 대해 논의한 이진숙, 앞의 글, 2014를 참고해 볼 때 잠정적 7모음 체계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남 동부의 구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서북부의 곡성 지역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신영, 앞의 글과 이기갑, 앞의 글, 2010에 따르면 전남 서부의 곡성 지역은 /ㅖ/와 /ㅒ/가 변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두 모음이 어두 위치에서만 변별적이라는 점과 일부 단어에서 변별성을 상실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산출과 지각 측면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곡성 지역어 화자가 /ㅖ/, /ㅒ/를 변별적으로 산출/지각하고 있다면 여타의 서북부 지역과는 다른 단모음 체계를 가짐과 동시에 동부의 구례 지역과 체계적 동일성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 방언의 하위 방언권 구획이나 방언의 언어적 변화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전남 방언의 단모음 음가 변화

전남 방언은 동부 접경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이 7모음 체계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른 시기에 나타난 '/ㅔ, ㅐ/ 〉 /E/'와 /ㅝ/, /ㅚ/의 이중모음화 과정은 큰 틀에서 중부 방언의 단모음 체계 변화와 궤를 같이할 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도 동일하다. 그러나 단모음 체계의 동일성이 음가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방언의 /ㅓ/는 중부 방언의 /ㅓ/에 비해 전설 고모음 위치에서 조음된다[40]. 또한 경남 지역의 /E/는 /ㅐ/의 음역을 보이는 데 비해 전남 지역의 /E/는 /ㅔ/의 음역을 보인다[41].

전남 방언의 단모음에 나타나는 음가 특성은 세대와 성별을 변수로 하여 방언 내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ㅜ/, /ㅗ/를 포함한 후설 중고모음의 음가 변화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방언권에서 일어나고 있다[42]. 전남 방언권 역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후설 중고모음의 음가 변화가 관찰되며, 이 변화는 노년층과도 부분적인 영향 관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전남 동부의 청소년층에게서 나타나는 /ㅓ/의 후설 저모음화 현상은 이 지역의 노년층 여성에게서도 관찰된다[43].

이처럼 전남 방언의 단모음 음가는 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언어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모음의 포먼트 측정값을 중심으로 전남 방언의 음가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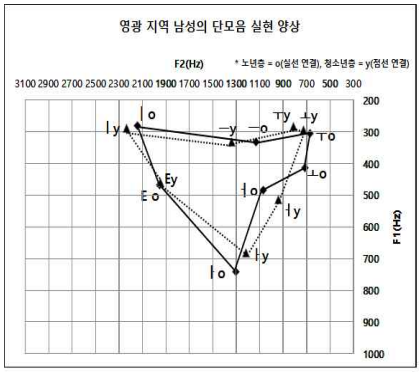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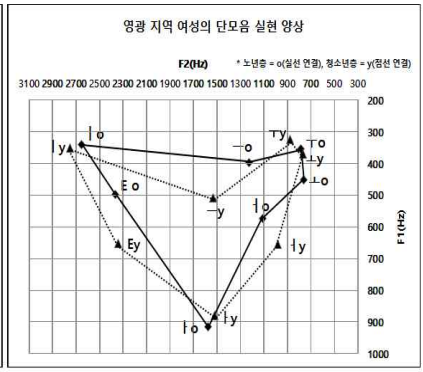
40) 이승재, 앞의 글; 박양구, 앞의 글; 정채삼, 앞의 글; 이진숙, 앞의 글, 2013; 정인호, 앞의 글;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하영우, 앞의 글.

41) 서주열, 앞의 글.

42) 성철재,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한국어 단모음 포먼트 분석」, 『언어학』 제43호, 한국언어학회, 2005; Kang, Yoonjung, "A Corpus-Based Study of Positional Variation in Seoul Korean Vowels",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23, 2014;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제21집 2호, 한국음운론학회, 2015; 신우봉, 「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강지은・공은정, 「서울 방언 단모음의 소리 변화와 음향 단서 연구: 단일지점 포먼트와 궤적 양상」,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8권 4호, 한국음성학회, 2016;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 하영우・오재혁, 「아나운서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제23집 1호, 한국음운론학회, 2017;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하영우, 앞의 글.

43) 하영우, 앞의 글.





세대	성별	포먼트	ㅣ	ㅔ	ㅡ	ㅓ	ㅏ	ㅜ	ㅗ
노년층	남	F1(Hz)	280	469	333	484	742	306	414
		F2(Hz)	2142	1954	1133	1073	1307	673	717
청년층	남	F1(Hz)	289	459	332	515	681	283	295
		F2(Hz)	2235	1947	1340	942	1214	808	725

세대	성별	포먼트	ㅣ	ㅔ	ㅡ	ㅓ	ㅏ	ㅜ	ㅗ
노년층	여	F1(Hz)	340	497	396	572	915	354	451
		F2(Hz)	2655	2366	1231	1114	1580	789	760
청년층	여	F1(Hz)	352	651	509	655	879	324	371
		F2(Hz)	2749	2341	1532	982	1522	875	767

〈그림 4〉 전남 서북부 지역(영광)의 단모음 실현 양상

〈그림 4〉는 전남 영광 지역의 단모음 실현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영광 지역의 단모음 체계는 대체로 7모음 체계로 수렴되지만 단모음의 음가는 세대와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먼저 노년층은 /ㅜ/와 /ㅗ/가 혀의 고저와 관련된 F1을 기준으로 분포한 데 비해 청소년층은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된 F2를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층의 /ㅡ/는 노년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설에 위치하고 있다. /ㅓ/ 역시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노년층은 전남 방언 연구의 전통적 가정대로 /ㅓ/가 상대적으로 전설고모음 위치에 분포한 데 비해 청소년층의 /ㅓ/는 노년층을 기준으로 볼 때 후설저모음 위치로 이동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남 서북부 지역의 세대에 따른 단모음 음가 차이는 대체로 후설 중고모음에 집중되어 있다. 단모음 음가의 변화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크게 '/ㅜ/와 /ㅗ/의 음가 변화', '/ㅡ/의 전설화', '/ㅓ/의 후설저모음화'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서북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음가 특성과 변화는 서남부와 동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에 다음에서는 본고의 분석 자료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전남 동부, 서남부, 서북부의 단모음 변화 양상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ㅜ/와 /ㅗ/의 음가 변화'이다. 7모음 체계에서 원순모음은 후설에 /ㅜ/와 /ㅗ/만 존재한다. 두 모음은 전통적으로 혀의 고저에 의해 변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ㅜ/와 /ㅗ/의 음가가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된 F2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ㅜ/와 /ㅗ/의 음가 변화는 전국 방언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이며, 전남 방언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 전남 지역 화자의 /ㅜ/, /ㅗ/ 분포 유의미성

유형	노년층		청소년층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서북부(영광)	F1	F1	F2	F2
서남부(진도)	F1	F1	F1, F2	F2
동부(순천)	F1	F1	F1, F2	F2

〈표 5〉는 /ㅜ/와 /ㅗ/를 대상으로 한 F1과 F2 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하위 방언권과 세대, 성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남 서북부는 노년층이 혀의 고저와 관련된 F1이 /ㅜ/, /ㅗ/의 차이를 이끌어내는 데 비해 청소년층은 F2만이 두 모음에서 차이가 있었다.[44] 서남부와 동부의 노년층은 서북부와 동일하게 F1만이 /ㅜ/, /ㅗ/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남부와 동부의 청소년층은 여성이 F2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남성은 F1과 F2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남 방언권에서 나타나는 /ㅜ/, /ㅗ/의 음가 변화 양상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두 모음의 '고저 → 전후' 대립 변화가 명확한 방향성을 지니고

44) 영광 지역어 화자의 /ㅗ/, /ㅜ/ 실현 양상이 세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대와 성별, 모음을 독립변수로 하고 F1과 F2를 종속변수로 삼아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F1은 세대($F_{(1, 153)}$=58.986, p<.001), 성별($F_{(1, 153)}$=39.206, p<.001), 모음($F_{(1, 153)}$=69.401,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세대와 모음($F_{(1, 153)}$=19.481, p<.001)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사후검정(TukeyHSD)을 실시한 결과 F1은 노년층에게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청소년층은 차이가 없었다. F2는 세대($F_{(1, 153)}$=18.465, p<.001), 성별($F_{(1, 153)}$=31.194, p<.001), 모음($F_{(1, 153)}$=12.070,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세대와 모음($F_{(1, 153)}$=17.045, p<.001), 성별과 모음($F_{(1, 153)}$=4.658, p<.05)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사후검정(TukeyHSD)을 실시한 결과 F2는 F1과 반대로 청소년층에게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어남을 보여 준다.[45] 또한 /ㅜ/, /ㅗ/의 음가 변화가 노년층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변화 대상 집단인 청소년층만 두고 보았을 때 변화의 속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하위 방언권에 따른 /ㅜ/, /ㅗ/의 음가 변화 속도는 청소년층 남성의 F1만을 기준으로 볼 때 서북부 지역이 가장 앞서 있지만, 모든 지역의 청소년층 여성이 두 모음에 대해 F2만 유의미성을 지니므로 지역적 차이를 단언하기는 어렵다.[46]

단모음의 음가 변화는 /ㅜ/, /ㅗ/에 인접한 모음에서도 일어난다. /ㅗ/의 고모음화와 /ㅜ/의 전설화 현상은 /ㅡ/의 전설화와 함께 관찰된다. 이는 〈그림 4〉에서 /ㅜ/, /ㅗ/의 음가 변화를 보인 청소년층은 남녀 모두 /ㅡ/ 모음이 노년층에 비해 F2 값이 더 높다는 데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통계 검증 결과 서북부의 지역 화자는 세대에 따라 /ㅡ/의 F2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서남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47]

/ㅡ/의 음가가 '전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세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보다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위 방언권별로 /ㅡ/ 모음의 전설도도 측정해 보았다.[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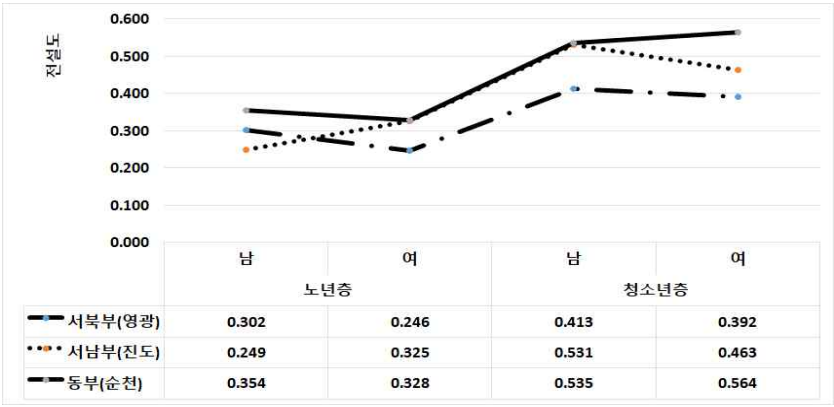
---

45) 전남 방언의 /ㅜ/, /ㅗ/ 음가 변화는 이 지역의 단독적인 변화가 아닌 표준어의 영향에 의한 일종의 전국적인 수렴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에서는 전국 단위로 일어나는 후설 중고모음의 연쇄적 변화를 표준어 지향에 따른 수렴 현상으로 해석하였는데, 전남의 하위 방언권별로 나타나는 현상 역시 이에 준한 것으로 이해된다.

46)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ㅜ/, /ㅗ/의 음가 변화는 노년층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향원・신우봉・신지영, 앞의 글에 따르면 장흥과 광주 지역의 50-60대는 /ㅜ/, /ㅗ/가 모든 성별에서 F1, F2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ㅜ/, /ㅗ/의 음가 변화가 노년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각 세대를 면밀하게 세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7) 영광 지역어 화자의 /ㅡ/ 모음이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대, 성별을 독립변수로, F1과 F2를 종속변수로 삼아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F1은 세대($F_{(1, 76)}$=6.615, $p<.05$), 성별($F_{(1, 76)}$=34.013,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세대와 성별($F_{(1, 76)}$=7.641, $p<.01$)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사후검정(TukeyHSD)을 실시한 결과 F1은 여성에게만 세대별 차이가 있었다. F2는 세대($F_{(1, 76)}$=41.377, $p<.001$), 성별($F_{(1, 76)}$=13.953, $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사후검정(TukeyHSD) 결과 F2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세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남 서남부의 진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ㅡ/ 모음 관련 통계는 하영우, 앞의 글, 313면에 제시되어 있다.

48) 전설도는 F2 값을 기준으로 양극단의 단모음 축을 설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대상 모음의 전설화 정도성을 수치화하는 방법이다. 송창헌, 「한국어 모음 'ㅡ'의 음가 변화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신우봉, 「한국어 /ㅓ/의 음성 실현 양상 연구: 서울코퍼스를



	노년층		청소년층	
	남	여	남	여
서북부(영광)	0.302	0.246	0.413	0.392
서남부(진도)	0.249	0.325	0.531	0.463
동부(순천)	0.354	0.328	0.535	0.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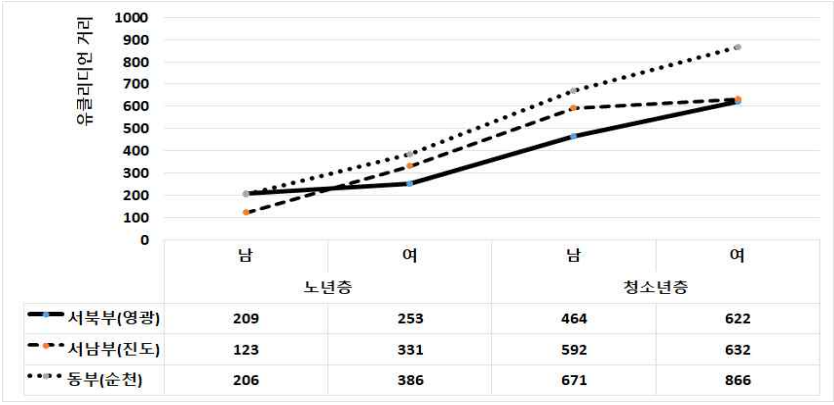
〈그림 5〉 전남 지역의 /ㅡ/ 모음 전설도

〈그림 5〉는 전남 서북부, 서남부, 동부 지역의 세대와 성별에 따른 /ㅡ/ 모음 전설도를 제시한 것이다. 전남 서북부 지역의 /ㅡ/ 전설도는 노년층 남성이 0.302, 여성이 0.246으로 청소년층의 전설도(남: 0.413, 여: 0.39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남 서남부 역시 노년층(남: 0.249, 여: 0.325)이 청소년층(남: 0.531, 여: 0.463)에 비해 높았으며, 동부 지역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노년층 남성: 0.354, 노년층 여성: 0.328, 청년층 남성: 0.535, 청년층 여성: 0.564). 전남 지역의 /ㅡ/ 전설도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통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세대에 따라 /ㅡ/ 전설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49] 다시 말해 젊은 세대는 노년층에 비해 /ㅡ/를 전설화하여 조음한다.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60집, 겨레어문학회, 2018; 송창헌, 앞의 글에서는 F2를 기준으로 한 양 극단을 /ㅣ/와 /ㅡ/로 설정하였으나 신우봉, 앞의 글, 2018에서는 후설원순모음의 극단 값이 대개 /ㅜ/가 아닌 /ㅗ/로 나타나는 점을 들어 '대상 모음 x의 전설도 $= \frac{/x/\text{의 } F2 - /ㅗ/\text{의 } F2}{/ㅣ/\text{의 } F2 - /ㅗ/\text{의 } F2}$'로 식을 수정했다. 본고에서 다룬 영광 지역어 화자의 단모음 F2 역시 대체로 /ㅗ/가 극단값으로 나타났으므로 신우봉, 앞의 글, 2018의 제안을 따랐으나 노년층 남성은 /ㅜ/가 /ㅗ/에 비해 F2가 높기 때문에 이 경우만 송창헌, 앞의 글의 식을 따랐다.

49) 서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의 /ㅡ/ 전설도가 세대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세대, 성별로 설정하고 전설도 값을 종속 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북부 지역의 /ㅡ/ 전설도는 세대($F_{(1, 76)}$=32.907, $p<.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TukeyHSD)을 실시한 결과 세대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서남부 지역의 /ㅡ/ 전설도는 세대($F_{(1, 98)}$=67.705, $p<.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세

전남 지역의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ㅜ/, /ㅗ/, /ㅡ/의 음가 변화는 후설 모음 /ㅓ/에서도 관찰된다. 전통적으로 전남 방언의 /ㅓ/는 여타의 방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설고모음 위치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ㅓ/의 음가 특성은 현재 세대를 변수로 하여 변화하고 있다. 세대에 따른 /ㅓ/의 음가 차이는 아래 〈그림 6〉처럼 유클리디언 식을 활용한 /ㅡ/와 /ㅓ/ 간 거리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	여	남	여
	노년층		청소년층	
서북부(영광)	209	253	464	622
서남부(진도)	123	331	592	632
동부(순천)	206	386	671	866

〈그림 6〉 전남 지역어 화자의 /ㅡ/와 /ㅓ/ 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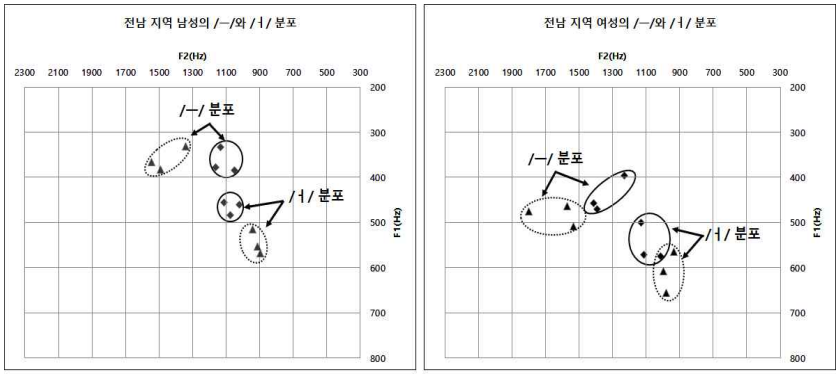
〈그림 6〉은 유클리디언 식을 이용한 전남 하위 방언권별 /ㅡ/와 /ㅓ/ 간 거리이다. 전남 지역의 노년층은 두 모음 사이의 거리가 최소 123에서 최대 386의 분포를 보이는 데 비해 청소년층은 최소 464에서 최대 866의 분포를 보인다. 전남의 하위 방언권별로 /ㅡ/와 /ㅓ/ 간 거리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세대에 따른 유의미성이 관찰되었다.[50] 이는 노년층의 경우 /ㅓ/가 전설고모음 위치에서 조음되어 /ㅡ/와의

대와 성별 간 유의미한 상호 작용($F_{(1, 98)}$=7.806, p〈.01)도 있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영광 지역과 동일하게 세대에 따른 차이만 있었다. 동부의 순천 지역에서 나타나는 /ㅡ/ 전설도의 통계 검증은 하영우, 앞의 글, 396면에 제시되어 있다.

50) /ㅡ/, /ㅓ/ 간 거리가 세대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세대, 성별을 설정하고 종속 변수를 거리 값으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북부의 영광 지역은 세대($F_{(1, 77)}$=137.776, p〈.001), 성별($F_{(1, 77)}$=20.567, p〈.001)에

거리가 짧은 데 비해 청소년층은 /ㅡ/와 /ㅓ/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대에 따라 /ㅡ/와 /ㅓ/ 간의 거리에 차이가 있는 것은 청소년층의 /ㅓ/ 음가 변화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청소년층은 /ㅗ/의 고모음화, /ㅜ/와 /ㅡ/의 전설화와 함께 /ㅓ/가 후설 저모음 위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7〉 전남 지역어 화자의 /ㅡ/와 /ㅓ/ 분포

〈그림 7〉은 성별에 따른 전남 지역 화자의 /ㅡ/와 /ㅓ/ 분포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ㅡ/와 /ㅓ/의 분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두 모음의 분포 양상은 세대를 기준으로 나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층의 /ㅡ/는 전방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F2가 높은 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층의 /ㅓ/는 노년층에 비해 F1의 증가와 함께 F2의 감소가 성별을 가로질러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즉, 노년층의 /ㅓ/는 대체로 전남 방언의 특성을 유지하여 전설고모음 위치에서 조음되는 데 비해 청소년층의 /ㅓ/는 후설저모음 위치로의 이동이 나타난다.

/ㅓ/의 음가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변수 간 상호 작용은 없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두 모음 간 거리는 세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동부의 순천 지역의 통계 결과는 하영우, 앞의 글, 398-399면에 제시되어 있다.

F1, F2 값을 대상으로 통계 검증을 실시했다.[51] 그 결과 세대에 따른 /ㅓ/의 음가 차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ㅓ/의 후설 저모음화'로 공통되지만 변화의 정도성은 하위 방언권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남 지역의 세대 간 /ㅓ/ 차이(F1, F2)

유형	남성 세대 간 차이		여성 세대 간 차이	
	F1	F2	F1	F2
서북부(영광)	X	○	○	○
서남부(진도)	○	○	○	○
동부(순천)	○	○	X	X

〈표 6〉은 하위 방언권별로 세대에 따라 /ㅓ/ 모음의 F1, F2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 X'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서북부 지역은 여성이 세대에 따라 F1, F2에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남성은 F2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ㅓ/의 음가 변화는 후설화(F2)와 저모음화(F1) 측면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이는 청소년층 여성의 /ㅓ/ 음가 변화가 청소년층 남성의 /ㅓ/ 음가 변화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북부와 달리 서남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ㅓ/의 F1, F2가 세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성별에서 /ㅓ/의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서남부의 청소년층이 서북부의 청소년층에 비해 /ㅓ/의 후설 저모음화가 빠르게 진행됨을 암시한다. 또한 서남부가 서북부보다 /ㅓ/ 음가 변화가 더 급진적으로 진행된다고 전제하면, /ㅓ/의 음가 변화는 저모음화(F1)보다 후설화(F2)가 이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

/ㅓ/의 음가 변화는 동부 지역 역시 큰 틀에서 서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

51) 서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ㅓ/의 음가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대, 성별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F1과 F2를 종속변수로 삼아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대($F_{(1, 79)}$=9.833, p<.01)와 성별($F_{(1, 79)}$=47.854, p<.001)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남성은 세대 간 차이가 없었고, 여성은 세대 간 차이가 있었다. F2는 세대 ($F_{(1, 79)}$=30.695, p<.001)에 따른 차이만 있었으며, 사후 검정(TukeyHSD) 결과 남녀 모두 세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서남부와 동부를 대상으로 한 /ㅓ/ 음가의 통계 검증은 각각 하영우·신우봉, 앞의 글, 314면과 하영우, 앞의 글, 397-398면에 제시되어 있다.

지만 노년층에 차이가 있다. 동부 지역은 남성의 경우만 F1, F2에서 세대별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여성은 F1, F2 모두 차이가 없었다. 동부 지역의 여성이 /ㅓ/의 음가에 세대 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노년층 여성의 /ㅓ/가 청소년층과 동일하게 후설저모음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52]. 동부 노년층 여성의 /ㅓ/ 실현 양상은 단모음의 음가가 세대별로 고정되어 있거나 젊은 세대에게서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전남의 하위 방언권별로 나타나는 /ㅓ/의 음가 양상은 후설모음의 연쇄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동부 노년층 여성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세대를 주요 변수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후설중고모음의 음가 차이는 /ㅓ/에서만 예외적이다. 다시 말해 노년층의 단모음 음가 변화는 /ㅓ/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이는 전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후설중고모음의 연쇄 변화가 /ㅓ/를 기점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53].

동부 지역의 /ㅓ/의 음가 변화 양상은 후설중고모음의 음가 변화의 순서에 대한 단서도 제공한다. 동부 지역의 여성 집단은 /ㅓ/의 음가에 차이가 없지만 /ㅡ/와 /ㅓ/ 간 거리에 차이가 있다. 동부 노년층 여성의 /ㅓ/는 청소년층 여성과 동일하게 음가가 변했지만 /ㅡ/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소한 /ㅓ/의 음가 변화가 먼저 나타난 후 나머지 후설중고모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전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후설중고모음의 음가 변화는 동시에 일어났다기보다는 단모음별로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남 지역에서 /ㅓ/가 후설중고모음의 연쇄적 음가의 시작점이 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나 모음 공간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전남 방언의 /ㅓ/는 다른 방언권에 비해 전설고모음 위치, 즉 /ㅡ/에 가깝게 조음되었다. 이로 인해 전남 지역의 단모음 공간에서 후설저모음 지역의 여백은 다른 방언권에 비해 더 크다. 이와 같은 공간 구조적 조건에서

52) 하영우, 앞의 글, 397-398면.
53) 같은 글, 400면 참조.

전남 지역의 단모음 음가가 '변화'에 놓인다면 음가의 변화는 보다 쉬운 방향, 즉 /ㅓ/의 후설저모음화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남 방언의 단모음 음가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남 방언의 음가 변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ㅜ/의 전설화, /ㅗ/의 고모음화, /ㅡ/의 전설화, /ㅓ/의 후설저모음화의 방향성을 지니고 나타난다.
② 후설중고모음의 음가 변화는 /ㅓ/가 시작점으로 추정되며, 동시적 변화라기보다는 단계적 변화로 이해된다.
③ 음가 변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빠르게 나타나지만, 노년층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④ 음가 변화의 속도는 하위 방언권별로 부분적 차이가 있으나 격차가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5. 결론

본고는 전남 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 변화 양상을 실험음성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남 서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단모음 실현 양상과 음가를 분석하였으며, 유사 방식으로 논의된 전남 서남부와 동부의 자료를 종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남 방언의 단모음은 /ㅣ, ㅔ, ㅟ, ㅚ, ㅡ, ㅓ, ㅏ, ㅜ, ㅗ/의 9모음 체계로 보았으며, 동부 일부 지역만 /ㅖ/, /ㅐ/가 변별적인 10모음 체계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전남 서북부, 서남부, 동부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단모음 체계의 차이는 하위 방언권이 아닌 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9모음 체계가 7모음 체계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남의 하위 방언권과 상관없이 청소년층은 /ㅟ/, /ㅚ/가 단모음 체계에 내에서 완전히 이탈한 7모음 체계이며, 노년층은 두 모음이 단모음으로서의 흔적만 남아 있는 잠정적 7모음 체계이다. 다만 동부의 경남·전남 접경지대는 노년층에 한정하여 /ㅖ/, /ㅐ/가 변별적인 잠정적 8모음 체계이다.

전남 방언의 단모음 변화는 음가에서도 나타났다. 단모음의 음가 변화는

체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세대를 주요 변수로 한다. 노년층의 /ㅓ/는 전통적인 전남 방언 연구의 가정대로 /ㅡ/에 가깝게 실현되는 데 비해 청소년층은 후설저모음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층의 단모음 음가는 '/ㅓ/의 후설저모음화'를 포함하여 '/ㅗ/의 고모음화, /ㅜ/와 /ㅡ/의 전설화'로도 나타났다. 다만 일부 노년층의 /ㅓ/는 청소년층과 동일한 음가 변화 양상을 보여 노년층의 단모음 음가도 가변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후설중고모음에서 나타나는 연쇄적 음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모음별로 순서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며, /ㅓ/가 변화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지역이나 지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방언 특성은 최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세대나 성별, 표준어 지향성 같은 요인에 큰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다. 전남 지역의 단모음 체계와 음가의 변화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방언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앞으로의 방언 연구도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강지은・공은정, 「서울 방언 단모음의 소리 변화와 음향 단서 연구: 단일지점 포먼트와 궤적 양상」,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8권 4호, 한국음성학회, 2016, 39-47면.

기세관,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_____, 「여수방언의 음운론적 특성」, 『先淸語文』 제24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6, 147-172면.

김경표, 「해남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8.

_____, 「전남 도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김봉국, 「경남・전남 접경 지역어의 음운」, 『동남어문논집』 제31집, 동남어문학회, 2011, 5-25면.

김희수・서상준, 「광양지역의 방언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제13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1983, 115-170면.

남정식, 「全南 內陸 方言의 音韻考: 東部地域과 海岸地域을 比較하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1990.

박양구, 「전남 방언의 모음체계」, 『논문집』 제7집, 漢城大學校, 1983, 127-141면.

배주채, 『고흥방언 음운론』, 國語學會, 1998.

서성원, 「순천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2.

서승완, 「방언학의 관점에서 본 실험음성학 연구사: 모음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방언학』 제27호, 한국방언학회, 2018, 5-37면.

서주열, 「전남・경남방언의 등어지대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1.

성철재, 「충남지역 대학생들의 한국어 단모음 포먼트 분석」, 『언어학』 제43호, 한국언어학회, 2005, 189-213면.

손희하・위평량, 「구림 지역어의 변화: 노년층과 장년층의 음운 비교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28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1, 95-115면.

송창헌, 「한국어 모음 'ㅡ'의 음가 변화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신우봉, 「제주 방언 단모음과 어두 장애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한국어 /ㅓ/의 음성 실현 양상 연구: 서울코퍼스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60집, 겨레어문학회, 2018, 233-258면.

위평량, 「전남・경남 접경 지역의 언어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0.

이경진, 「영광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08.

이기갑, 「전남방언의 하위구획」, 『한국언어문학』 제21집, 한국언어문학회, 1982, 379-395면.

_____, 「동부전남 방언의 성격」, 『언어학』 제7호, 한국언어학회, 1984, 115-133면.

_____,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1986.

_____, 『2010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2010.

이돈주, 『전남방언』, 형설출판사, 1978.

이상신, 「전남 영암지역어의 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

이승재,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0.

이진숙, 「진도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_____, 「고흥 지역어와 진도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_____, 「담양 지역어의 특징적인 음운현상」, 『국어학』 제69집, 국어학회, 2014, 105-133면.

이향원・신우봉・신지영, 「한국어 후설 고・중모음에 대한 사회음성학적 연구」, 『말소리와 음성

과학』 제9권 2호, 한국음성학회, 2017, 39-51면.
장혜진・신지영・남호성, 「서울 방언 단모음의 연령별 실현 양상」,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제21집 2호, 한국음운론학회, 2015, 341-358면.
정인호, 「현대국어 모음 '어'의 음가 고찰」, 『방언학』 제22호, 한국방언학회, 2015, 203-225면.
정채삼, 「全南 康津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95.
하신영, 「전남 곡성지역어와 경남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하영우, 「순천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언어와 정보 사회』 제35호,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2018, 379-40면.
하영우・신우봉, 「전남 진도 지역어의 단모음 실현 양상」, 『민족문화연구』 제79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299-320면.
하영우・오재혁, 「아나운서의 단모음 실현 양상과 특징」,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제23집 1호, 한국음운론학회, 2017, 55-94면.

Kang, Yoonjung, "A Corpus-Based Study of Positional Variation in Seoul Korean Vowels",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23, 2014.
Tukey, J., *Exploratory Data Analysis*, Reading, Mass: Addison-Wesly, 1977.

【Abstract】

The change of vowel phonetic value and the vowel system in Jeonnam dialect

Ha, Young-Wo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vowel system and acoustic characteristics of monophthongs in the Jeonnam dialect. For this purpose, along with the results of existing research on the southwestern regions and eastern regions of Jeonnam dialect, an experiment was conducted on residents in the elderly and the adolescent living in Yeonggwang (the northwestern part of Jeonn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Jeonnam dialect, the vowel system varies according to generation, rather than region. The younger generation has seven vowel system (/ㅣ, E, ㅡ, ㅓ, ㅏ, ㅜ, ㅗ/), while the older generation has tentative seven vowel system because /ㅟ/, /ㅚ/ remains a monophthongs even though they are weak. And unlike other Jeonnam province, older people of Gurye that is a border area between Jeonnam and Gyeongnam, have a 8 vowel system (/ㅣ, ㅖ, ㅐ, ㅡ, ㅓ, ㅏ, ㅜ, ㅗ/). Meanwhile, the monophthongs in the Jeonnam dialect is changing its place of articulation around the younger generation. The phenomenon that /ㅜ/, /ㅡ/ moved toward front and /ㅗ/ moved toward high occurred in the young generation only. And /ㅓ/ also showed signs of moving to the rearward position and the low vowel position when most of the younger generation. Only a group of elderly women in the eastern part of Jeonnam province have been observed to change /ㅓ/ in a similar way to the younger generation.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the change in the place of articulation of the monophthongs in Jeonnam dialect started from /ㅓ/. The reason why /ㅓ/ was the first subject of change in the place of articulation in Jeonnam province was attributed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vowel space.

Keywords: Jeonnam dialect, vowel system, place of articulation on vowel, generation, standardizatio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Jeonju Univ.

접수일: 2019.03.31.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09.